

오늘의 기사판

제 61주년 광복절 기념식 오전 10시 광주시민회관 앞·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역사속의 오늘

뉴스퀴즈

15일
▶제 61주년 광복절 기념식= 오전 10시 광주시민회관 앞.
▶제 42회 전남도립 입상작품 광양순회전= 19일까지 광양시 문화회관 제 1·2전시실.
▶북한관련 도서 전시회= 20일까지 일곡도서관 1층 로비. 북한 도서 150여권 전시. 북한 영화 상영.
▶팬스메탈 그룹전= 1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대구열전'을 주제로 금속 공예 작품 전시. 작가 19명 참여.
▶파랑새는 있다= 16일까지 롯데화랑. 동신대 조진호 교수의 사진전으로 분교 학생들의 꿈을 담은 작품 16점 전시.
▶중국작가 탕마오홍의 'Sunday'전= 20일까지

오후 3시,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북한영화 '개성시의 고려역사 유적지'상영= 16일(수) 오후 2시 일곡도서관 강당.
▶제 42회 전남도립 입상작품 광양순회전= 19일까지 광양시 문화회관 제 1·2전시실.
▶북한관련 도서 전시회= 20일까지 일곡도서관 1층 로비. 북한 도서 150여권 전시. 북한 영화 상영.
▶팬스메탈 그룹전= 1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대구열전'을 주제로 금속 공예 작품 전시. 작가 19명 참여.
▶파랑새는 있다= 16일까지 롯데화랑. 동신대 조진호 교수의 사진전으로 분교 학생들의 꿈을 담은 작품 16점 전시.
▶중국작가 탕마오홍의 'Sunday'전= 2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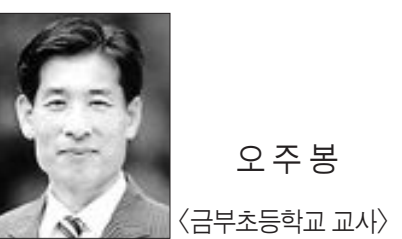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탕마오씨가 제작한 대형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 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제 7회 무등산 사랑전= 31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서양화·문인화 등 51점.
▶일곡도서관 동아리 회원전= 31일까지 일곡갤러리. 입체 POP디자인 30점·단인형 30점·필크 20점 등 회원들의 작품 전시.
▶'그림속 동물 읽기'전= 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오월문학관 기획 전시회= 21일부터 31일까지. 타이틀·예자 등 30여점 전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출생(1769)
▶파나마 운하 개통 (1914)
▶일본 포츠담선언 수락, 무조건 항복(1945)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1948)
▶한글맞춤법통일안 발표(1948)
▶농업협동조합 발족(1961)
▶새돈 500원권 유통(1966)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1974)
▶새마을호 운행 개시(1974)
▶독립기념관 개관(1987)
▶임수경씨·문규현 신부, 전대협 대표로 평양 축전에 참가한 후 관문점 통해 귀환(1989)
▶이내창군 의사(1989)
▶조오련, 한강 600여리(250km) 열흘 만에 종단 성공 (2003)
▶8·15 민족대축전(2005)
▶남북 이산가족 첫 화상상봉(2005)

25. 최근 개봉한 이 영화가 기존의 한국영화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20개 상영관에서 줄곧 예매율 선두를 고수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역대 최단 기간에 1천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① 괴물 ② 한반도 ③ 다세포소녀 ④ 각설장

참여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용 오프라인 주머니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에게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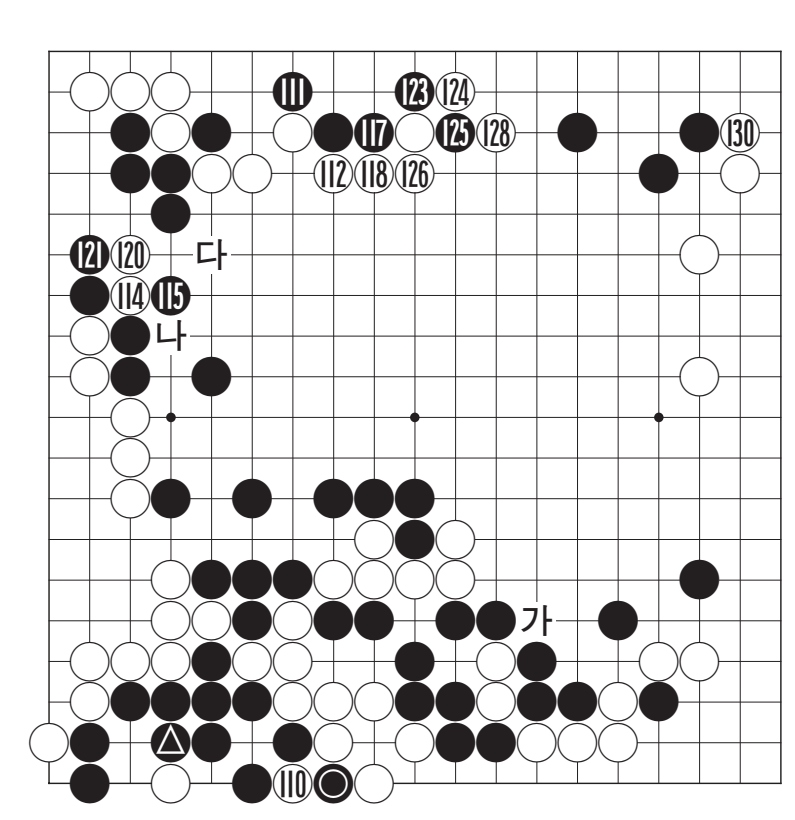
오 주 봉
<금부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저 곧 졸업하는데 사회복사자가 됐어요. 초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한 이후로 그 꿈을 갖게 됐어요."
10여 년 전 제자 미진으로부터 반가운 전화가 왔다. 그때도 지금처럼 학습 지도보다는 생활 지도가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아이를 모두가 좋아하는 체육 시간에도 선생님의 할 일은 많다.
발 야구 시합을 하는 중이었다. 미진이는 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같은 편 은비와 부딪쳐서 못 받았다고 눈을 흘긴다. 그리고 "절로 가!"하고 쏘아붙인다.
"미진아, 친구도 잘하려다 그런 건데, 너무 그러지 마라." 이제 미진이에 편이 공격할 차례다. 자기 싫어하는 미진이는 운동장 구석 언덕배기에서 달려 내려와 공을 뺏 차고 힘차게 1루까지 달려간다.

나누는 기쁨, 베푸는 즐거움

이어서 은비가 차 차례다. 은비도 잘하려고 힘써 달려 공을 뺏 차다. 해라가 공중에서 잡아 버렸다. 2루를 향해 달려온 미진이는 다시 1루로 돌아가지만, 해라는 1루를 지키던 진아에게 공을 던진다. 미진 이까지 아웃이 된 것이다.
화가 난 미진이는 친구에게 나오는 대로 쏘아 뺏는다. 나는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 내버렸다. "미진아, 운동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같은 친구들끼리 왜 그리 못살게 굴어. 너 계속 그러려면 그만 하고 집에 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것이다.
미진이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달려가 버렸다. "반장, 부반장! 가서 미진이 좀 데려와라." 교문 밖 가까운 곳에 미진이 집이 있었던 지라 얼마 되지 않아서 미진이가 왔다. 그날의 체육 시간이 이렇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날 오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주제로 임시회의를 했다. 자신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육아원을 방문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육아원을 방문하는 날, 아이들 모두 바빠있다. 깨끗이 세탁해 다림질해온 옷을 종류별로 박스에 차곡차곡 넣는 아이, 축구공이나 야구 글러브를 상자에 담은 아이, 재미있는 동화책을 예쁘게 포장하

는 아이 등 모두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육아원 친구들에게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과 편지를 나눠주고, 원장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화석과 분해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도 육아원 친구들과 건물 담장 밑에 웅기종기 앉아 잡초를 뽑으며 이름을 묻고, 하나 둘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황토강 다리를 건너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남자들은 축구 경기를, 여자들은 발야구를 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다. 육아원 꼬마가 "선생님, 사진 안 찍어요?"하고 물었다. 가슴 울컥한 말이었다. 대부분의 방문객이 기념품을 전달하며 사진 찍기에 바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함께 돌아온 것이 너무나 고맙다는 것이다.
버스에 하나 둘 오르며 울먹이는 아이, 버스 밖에 남겨진 아이들도 손을 흔들며 울먹였다. 내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과거를 내추셨다. 오늘의 활동에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의 다짐을 글로 써서 정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아끼고 우리 반 친구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녀석의 생활 속 작은 문제를 깨우치게 해준 10년 전 스승의 날 한 때의 풍경이었다. 그날 이후 서로 챙겨주며 지내는 제자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물론 미진도 그 예쁜 녀석 중 하나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과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나누는 기쁨과 베푸는 즐거움을 느끼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주춧돌, 기둥, 서까래 등으로 쓸모 있게 자랐으면 좋겠다.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지역비록대회
만신창이의 승리 제7보(110~130)
白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우하구를 백에게 뚫장 내주고도 흑 ▲로 돌 수밖에 없어 아직도 패는 계속되고 있다. 흑으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이며 백은 쿨노래가 질로 나오는 장면이다.
이미 이 패는 흑이 지면 안되는 절박한 패로 둔갑했다. 반면 백은 이미 본전은 뽑아놓고 있다. 이 생각은 포만감에 젖은 김영수 5단의 전투욕을 약간 느슨하게 한다.
흑은 필사적이므로 111부터 상변에 잔뜩 손해패를 써야만 하고 이제 는 백이 패를 지더라도 대가는 넘치 도록 받아냈다.
흑 127로 패를 뚫었을 때 드디어 김 5단은 128로 패를 양보하고 말았는데 더욱 더 흑을 괴롭힐러면 '가'와 '나', '다' 등 3개의 꺾임을 더 써야 했다.
흑이 패를 해소해 지리했던 패싸움은 흑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과는 흑이 '패에는 이기고 대세는 그르친' 만신창이의 결과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복숨을 연명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130으로 밀어 백이 승세를 구가하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KB국민은행 2006한국바둑리그 8라운드 경기 마무리됐다.
8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13일 파크랜드의 조현현 9단과 강동운 5단은 각각 월드메르디앙을 물리치면서 전날 0-2 패배를 2-2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모든 팀이 8경기 씩 치른 현재 중간 성적 1위는 한계인(승점 17점·5승2무1패)이 지켰으며 그 뒤를 KIXX(13점·3승4무1패), 월드메르디앙(12점·3승3무2패), 신성건설(10점·2승4무2패), 제일화재(8점·1승5무2패), 매일업업(7점·7무1패), 파크랜드(6점·6무2패), 영남일보(5점·5무3패) 등이 이었다. 9라운드는 17일부터 재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Animal Sign (e.g., 子, 丑, 寅) and Birth Year (e.g., 36년생, 37년생). Includes text about fortune and health.

Country English <711>
Whatever it is, ~
어찌됐던 간에, ~
A: You did this for me? thanks a lot! This is terrific!
B: I didn't. Don't thank me that much. It just turned out that way. I didn't try to do it.
A: Whatever it is, this is great!
B: It's my pleasure.
A: 자네가 이것을 했는가? 정말 고맙네! 잘했어!
B: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A: 어찌됐던 간에, 훌륭해!
B: 감사합니다.
This is terrific! : 잘했어! 대단해!
turn out : 결국 ~임이 관명되다(=prove)-보통 부사(구)를 수반함(사태 따위)가 되어 가다, 끝나다
Everything turned out well.
만사가 잘 되었다
The rumor turned out (to be) true.
그 소문은 사실임이 드러났다.

Ohio Nihongo <711>
それって、山をかけていたんですか?
그거 요행수를 노린거였어요?
A: 期末試験(きまつしけん)、どうだった?
B: まんまと、やられましたよ。山が全部(ぜんぶ)、はずれちゃって。
A: ええ、それって、山をかけていたんですか?
B: 中間試験(ちゅうかんしけん)では、山が全部(ぜんぶ)、あつたもので。へへへ...
A: 기말시험, 어땠어?
B: 보기 좋게 당했어요. 예상이 전부 빗나가버려서..
A: 에, 그거 요행수를 노린거였어요?
B: 중간시험은 전부 맞았거든요.. 해해해.
山をかける : 베풀치기
山があたる : 예상이적중하다
山がはずれる : 예상이 빗나가다
やられる : 당하다 やるの手術 ~ちゃって : ~てしまって
まんまと : 감쪽같이, 대단히 잘 , 성공적으로
あたる : 당첨되다, 맞다

Nihongo Hangeul <429>
上有天堂, 下有苏杭
하늘에는 천당, 지상에는 수저우와 항저우
A: 这次暑假去了什么地方?
B: 苏州和杭州.
A: 那地方怎么样?
B: 非常好.
A: 苏州和杭州有什么特点?
B: 苏州有园林, 杭州有西湖.
A: 苏州的园林有什么特点?
B: 苏州园林的特点是: 小巧玲珑, 亭台楼阁, 山水相映.
A: 杭州的西湖有什么特点?
B: 杭州西湖的特点是: 湖光山色, 断桥残雪, 平湖秋月.

한자 이야기 <329>
赦免(사면)
용서할 사, 면할 면
사(赦)는 복(口 : 동사의 기호)+적(赤 : 버리다)으로, 죄를 버리다, 용서하다로 사용된다. 면(免)은 여성이 넓적다리를 벌리고 웅크리고 앉아 좁은 산도(産道)에서 태아가 빠져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어, 빠져나오다, 면하다를 뜻한다.
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여 주는 일이다. '광복절특사(光復節特赦)'라는 영화 제목도 있지만, 광복절에는 매년 대대적인 사면과 복권(復讐)이 이루어진다. 이번에도 불법 대선자에게 연루된 정치인 5명을 포함한 142명에게 사면과 복권이 발표되었다.
사면은 전통시대에는 왕의 특권적인 자비(慈悲)로 베풀어졌기 때문에 은사(恩赦)라고도 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정치적 이유 또는 국가에 정사(慶事)스런 날을 기념하는 사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大統領)에게 사면권한이 주어졌고, 사면의 종류에는 사면·감형(減刑)·복권이 있다. 또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特別赦免)이 있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사면이 말 그대로 민족 화합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실시되려면, 사면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